

민간 손잡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후원회 공식 출범

관 주도 벗고 민간 참여 확대...지역 인사·도민 48명 참여
역사문화 공동체 확립...전시·교육·답사 후원 활동 본격화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민간 후원 조직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 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전남도는 27일 남도의병역사박물관 후원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후원회는 관 주도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박물관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결성된 자율 조직이다. 박물관 설립 취지와 의병 정신에 공감한 지역 인사와 도민 등 48명이 창립 회원으로 참여했다.
이번 창립총회에서는 후원회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임원진을 선출했다. 초대 회장에는 이진문 회장이 선출됐으며, 부

회장과 사무국장 등 임원 구성도 마무리됐다. 후원회는 이를 계기로 박물관과 지역사회를 잇는 민간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후원회는 앞으로 전시·교육·연구 사업에 대한 후원을 비롯해 의병 유적지 답사, 역사교육 프로그램 참여, 시민 참여형 학술·문화 행사 협력, 회원 역량 강화와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한다. 특히 회원이 직접 참여하는 답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병 역사를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확산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의병 정신을 단순한 과거의 역사로 남기지 않고, 오늘의 가치로 재조명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역사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이진문 초대 후원회장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이 지향하는 의병 정신 선양과 지역 문화 융성을 위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종환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개관준비단장은 “후원회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박물관의 공공적 역할을 확장하고, 의병의 숭고한 정신을 도민과 함께 이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에 조성된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광역지방정부 최초의 의병 역사 전문 박물관으로, 남도의병의 역사와 정신을 체계적으로 조명하는 공간이다. 박물관은 오는 2월 24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민간 후원 조직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 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악 명인·명창과 과자회사 임직원 ‘화음’ ‘크라운해태 한음회’ 광주서 전국 순회 첫 공연

국악 명인·명창과 크라운해태 임직원들이 한 무대에 올라 음악회를 펼쳤다.
크라운해태제과(회장 운영달)는 지난 28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국악 명인 명창들과 공동으로 ‘제7회 크라운해태 한음회’를 성황리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크라운해태 임직원들이 고 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전국 순회 공연을 진행하며 마련됐다. 지난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연 4회 열린 공연은 올해 전국 중소도시를 포함해 총 16회에 걸쳐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난다.

올해 순회공연의 첫 포문을 연 광주에서는 전석인 1500석을 고객 초청으로 채워 지역민들과 하나되는 무대를 꾸렸다. 공연이 펼쳐지자 객석의 박수갈채가 이어져 공연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는 후문이다.
공연은 종묘제례악부 ‘전폐희문’으로 화려하게 막을 연 가운데 가곡 우호주원, 봉황대상과 12가사 중 매화가, 신명나는 사물놀이와 어울려 흥겨움을 한층 더했다. 장기타령과 자진랫노래, 민요 공연으로 우리 음악의 정수를 보여주고, 판소



제7회 크라운해태 한음회 광주공연이 28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 가운데 크라운해태 임직원 국악동아리 멤버들이 민요 장기타령을 공연하고 있다.

리 연성백년, 농부가, 진도아리랑이 이어졌다. 또 이날 무대에는 한음 영재들과 국악 명무도 무대에 올랐다. 지난해 제13회 모여라 한음영재를 연희부문 대상과 전북 학생예술제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수준급 실력을 뽐내고 있는 군산시어린이무용단

이 ‘놀이, 굿, 판’을 선보였다.
크라운해태 관계자는 “올해 한음회 공연의 첫 시작을 광주 고객들과 함께 해 기쁘다”면서 “광역시부터 중소도시까지 순회하며 고객들에게 울림을 드리드리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

김동휘 교수, 국로 한마음 의학상 특별상 수상 임상의학 발전·환자 중심 진료 공로 인정받아

조선대학교병원원은 최근 김동휘 정형외과 교수가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 2층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제1회 국로(國路) 한마음 의학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로 한마음 의학상은 한마음국제의료재단이 주관하는 상으로, 국내 의학계의 학문적·임상적 성과를 조명하고 임상 의학 발전에 헌신하며 애국과 인류애를 실천해 온 의료인을 발굴·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동휘 교수는 임상의학 발전을 위해 꾸준히 연구와 진료에 전념해 왔으며, 환자 중심의 진료와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통해 의료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동휘 교수는 “뜻깊은 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환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진료를 실천하고, 임상의학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여수시, 제17기 테크니션 스쿨 힘찬 출발 입학식·취업전략 워크숍 연계... 실전형 청년 취업 교육

여수시는 ‘제17기 테크니션 스쿨입학식’과 취업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청년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돌입했다.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 하늬베이 호텔에 열린 입학식은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과 연계한 교육생 참여형으로 진행돼 시기 전작과 함께 취업에 대한 목표 의식과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행사에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테크니션 스쿨 교육생, 참여 강사, 관계부서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입학식에 이어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으로 ‘ChatGPT를 활용한 취업전략 수립’ 특강과 ‘취업 성공을 위한 브랜드 이미지 컨설팅’ 교육이 진

행됐다.
워크숍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기 분석과 맞춤형 취업 준비, 개인 강점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실전 취업전략을 중심으로 다뤘다.
여수시 관계자는 “테크니션 스쿨은 단기간 교육이 아닌, 청년들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실전형 프로그램이다”며 “연중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지역 산업을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7기 테크니션 스쿨은 올해 12월까지 운영되며, 교육생 33명은 여수산단에 특화된 취업교육과 현장 실습·취업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화순군청을 방문해 지역사회와의 나눔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후원금 전달했다.

진협 광주전남지부, 화순군에 후원금 전달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최근 화순군청을 방문해 지역사회와의 나눔 실천을 위한 사회공헌 후원금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후원금은 주민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앞으로도 정기적인 건강검진 사업을 비롯해 취약계층 지원, 건강 캠페인,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염염,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뜬사랑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숙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부음
▲신조춘씨 별세, 김용배·임배·양배(전남 일보 취재국 선임부장)·송배씨 모친상 = 27일 오후, 광주 서구 천지장제식당 301호, 발인 29일 낮 12시 30분, 장지 전남 강진군 성전면 선영. (062) 527-1000.

운세 (음력 12월 11일)

 취 48년생 재수가 불리하니 만사에 주의할 것 60년생 자연스러운 유도를 해야하는 날 72년생 이상이 없을 때 참성하기 쉬운 법이다 84년생 신용이 회복돼 시덕의 신인이 따른다 96년생 조바심이 날 수 있다	 소 49년생 무가치하면 의미를 부여 하지마라 61년생 지인을 만나 고민 상담을 해라라 73년생 약간 활동해도 편이한 결과를 낳는다 85년생 문서 구설수 많이 듣게 되니 주의하라 97년생 금전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 것	 호랑이 50년생 얻으려 하지만 얻는 것이 없다 62년생 상대적이라면 처리가 용이하다 74년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86년생 부부 간에 있었던 갈등이 해소된다 98년생 이성에게 배신당할 수 있다
 토끼 51년생 마음을 비운 난관을 쉽게 극복한다 63년생 빨리 결정하는 것이 이득이다 75년생 우려해 왔던 바가 실제로 발생한다 87년생 구설수 많이 듣게 되니 주의하라 99년생 취업하려면 시기가 좋지 않다	 용 52년생 모든 일에 너무 서둘지 말고 신중해라 64년생 토지문서를 주고받을 좋은 운세 76년생 큰 거래 계약이 성사된다 88년생 헛되이 수고했다고 생각마라	 뱀 53년생 답답해하지 말고 신책이라도 하라 65년생 술선수면 한다면 자연히 따르게 된다 77년생 이익이 증대돼 화색이 만연하리라 89년생 그것은 금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말 54년생 뜻과 맞지 않아 마음이 조급하다 66년생 제3자의 말에 좌우될 필요는 없다 78년생 말만 앞세우면 남매를 볼 수 있다 90년생 그 일 결행하기 전에 가족을 생각하라	 양 55년생 일이 터지기 전에 손을 써야한다 67년생 쏟아부은 노력과 반대의 결과 낳는다 79년생 융감하게 추진한다면 득이 많을 것 91년생 모험적인 투기에 손대지 말아라	 원숭이 56년생 잘 돼 가고 있으니 변경하려 들지 마라 68년생 출전고 경사선 일이 겹칠 수 있는 날 80년생 주변의 유혹이 많은 날 92년생 욕심나더라도 지인에게 양보하라
 돼지 57년생 지나친 의존은 귀하게게 피해준다 69년생 모든 일에 평화로운 분위기 형성된다 81년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실마리 조성된다 93년생 가까운 지인에게 말을 조심하라	 개 58년생 오랫동안 얹혔던 일이 해결 될 것 70년생 이직이나 신규 사업은 삼가는 것이 좋다 82년생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94년생 말이 과하면 화를 자초한다	 돼지 59년생 가정에 기쁨이 있고 만사형통 하다 71년생 앞으로 나아가려 할수록 어려워진다 83년생 바야흐로 길운이 한창 피어나는 때 95년생 무리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